

# 진도군, 생명을 구하는 4분의 기적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등 60여명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습 진행



진도군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비롯 군민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이번 교육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시 응급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이론과 실습 위주로 실시됐다.

심정지 등 응급 환자 발생 시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4분 안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

교육생들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정확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알찬 교육이었고 매년마다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 명품 쌀 자리매김 2006년부터 17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수상

강진군은 지난 13일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2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에서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상식은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농업협장과 RPC대표, 재경 향우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쌀 판매 촉진을 위해 하나로클럽 서울양재점에서 작겨래장터와 함께 개최됐다.

확보한 시상금은 쌀 고급화를 위해 품질개선,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호평'은 최신 정미 시설에서 피해립, 유색립, 싸라기, 이물질을 제거한 96% 이상

무결점 완전미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존존한 식감과 구수한 맛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보급종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전남농업기술원 채종포에서 생산한 종자를 사용하며, 강진군농협통합RPC에서 수매 건조 후 저온저장창고에 별도 보관을 통해 최상의 미질을 유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프리미엄 호평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수상을 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명품 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여름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장흥군은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우려 지역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폭염·가뭄에 따른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환경오염물질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하절기, 장마철 취약시기를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 “역사를 품고, 미래를 담은” 해남군 신청사 견학하세요

### 해남군 청사전학 프로그램 시범운영 7월부터 해남루 투어 등 실시



해남군 신청사를 관광해설사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 건립, 이전을 완료한 신청사를 군민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곳곳을 방문할 수 있는 견

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견학은 해남군청내 민원실과 역사관, 해남읍성의 관문이었던 해남루를 방문해 민관 소통의 상징적인 공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해남읍성을 걸어보며 읍성 역사에 얽힌 해남의

자극심 넘치는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견학에는 해남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오랜 역사를 품은 해남읍성의 숨겨진 이야기와 신청사가 가진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견학 신청은 군 재무과(☎061-530-5276)로 하면 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동안 10인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예약 후 방문시간을 정해야 한다.

해남군 신청사는 연면적 1만8,601㎡, 군청사 7층, 군의회 청사 5층 규모로 지난해 완공됐다. 1층 모자휴게실과 주민소통공간, 2층은 역사관 및 북카페, 대회의실 등 1층과 2층을 군민소통공간으로 구성하고,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주민자치시대의 열린 청사로 조성한 점이 특징이다.

3층은 상담과 옥외휴게공간, 4~6층은 직원 업무공간, 7층은 CCTV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구내식당으로 구성됐다. 지상 및 지하에 1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되어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 대책 추진

### 감염 취약시설 점검 강화 등 방역·의료 방안 마련 추진

완도군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BA.5 출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8월 이후 대규모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군은 ▲부서별 관리 시설물 특별 방역 점검 ▲집단 감염 취약시설(요양시설, 경로당 등) 점검 강화 ▲공직자 1인 1업소 담당제 운영 등을 실시한다.

의료 대책으로는 ▲재유행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단계별 대응 인력 확보(1~3단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심의 의료 체계 확충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 ▲재택 치료자를 위한 24시간 재택 치료 상담 센터 운영 ▲응급 상황 대비 체계 구축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 치료 물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다시 높이

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에 힘을 기울인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기저 질환자(18세 이상) 등 감염 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로 추가 확대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은 7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예방 접종 완료하기, 환기,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최소화, 손 씻기, 유증상 시 진료받기 등 6대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